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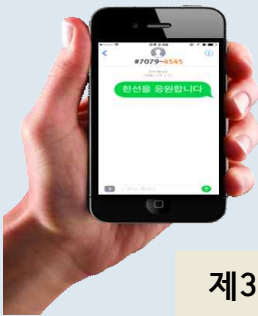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신국제질서 시대- 한국의 대외정책 방향

[발제자]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 시] 2022년 4월 14일(목) 오전 9시 30분

[장 소] YouTube 한선TV 채널



☒ 문자 후원

#7079-4545

제394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요 약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경제제재'의 한계와 '군사력'의 중요성, 특히 안보동맹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 이번 전쟁의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러시아 영향권이 있던 중앙아시아에서 크게 약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일본은 이번 사태를 통해 미국과 유럽의 가장 확실하고 신뢰할만한 동맹국으로 우뚝 섰다.
- 한국은 향후 중국, 북한,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당면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양극체제 안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외교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지역 내 안보를 위해 한미일협력과 쿼드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관계국과의 관계 증진을 더욱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 우크라이나 전쟁의 함의

가. 러시아 몰락과 양극체제 강화

- ◆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러시아의 강대국 대열 이탈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강대국이란 지위를 부여받은 나라들은 세계질서 안정을 위한 외교안보적 역할을 수반했다.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이라고 인정받으려면 안정이라는 공공재를 국제사회에 제공해야 한다.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포괄적 경제제재 및 외교 고립화를 자초했다. 러시아군의 졸전과 푸틴의 전략적 오판으로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은 추락했다. 결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냉전 산물로 여겨졌던 나토의 당위성을 강화했다.
- ◆ 우크라이나 전쟁은 나토의 영향력을 확대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독일 솔츠 총리의 모스크바 “셔틀외교”는 프랑스와 독일이 러·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유화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비쳤다. 한편 러시아의 회색지대전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미국은 국제적 리더십을 재확인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프랑스와 독일은 전쟁이 발발한 후에 비로소 군사지원을 개시했고 미국은 첨단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 ◆ 나토의 높아진 영향력으로 EU가 추구하는 전략적 자율성이 제한되었다. 유럽 전략적 자율성의 핵심은 미국으로부터의 안보 독립이다. 그러나 EU핵심국인 독일과 프랑스는 현재 동유럽 국가들에게 안전 보장을 제공할 능력이 부족하다. EU에서 탈퇴한 영국이 EU핵심국가들보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이다. 미국과 영국이 나토 핵심국가로서 안보협력과 핵우산을 제공하면서 미국은 나토를 강화하고 유럽 에너지 시장에서 러시아를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 ◆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수혜국이다. 서방측과 교류가 단절되면서 러시아는 더욱 중국에 의존할 것이다. 나토의 동쪽 경계에 대한 러시아 위협으로 미 군사력의 압박이 서태평양에서 유럽으로 이동했다. 이는 중국이 러시아의 전략무기(핵폭탄 기술, 전략폭격기)를 대거 도입할 수 있는 기회이다. 뿐만 아니라 제재로 인해 고립된 러시아 자원을 싼값에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러시아 세력권이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유라시아 경제권에서 자국의 기술 및 디지털 규범 채택을 강제하여 서방과 양립하는 자체적 경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중국에서의 서방측 첨단기업이 이탈하고 기술도입이 차단되어 중국의 기술개발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 ◆ 러시아의 몰락으로 중국은 명실상부 미국의 유일한 경쟁국으로 남았다. 중국은

중장기적으로 두 가지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시험하기 위해 대만, 한국, 구단선/ 남중국해 주변국들을 도발로 압박할 것이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분열을 유도하기 위해 유럽에 유화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나. 경제적 관여 정책의 한계

- ◆ 유럽의 경제적 관여정책은 외교안보 도구로서 명확한 한계를 보여줬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할 경우 미국과 EU가 “최대 규모”의 경제제재를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침공을 저지하는데 실패했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러시아와의 상호의존도 강화가 유럽과 러시아 관계 안정으로 이어진다고 믿었다.
- ◆ 상대적으로 높은 러시아 경제 개방성과 해외의존도는 푸틴의 전략적 계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경제 제재 위협이 러시아의 전쟁 의도를 억지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 푸틴은 개의치 않았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2014년 크림반도 병합 및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를 제재했다. 이후 푸틴은 이를 교훈으로 삼아 외화보유고를 꾸준히 늘렸다. 전쟁직전 러시아 중앙은행 외화보유고는 2014년 대비 2천억불이 증가하여 6천 4백억불에 다다랐다.
- ◆ 러시아와 유럽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도는 갈등을 해소 못하고 확전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경제적 관여 정책이 안보 정책의 핵심이 될 수 없음을 증명했다. 유럽의 대러 관여 정책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방지하는데 실패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경제적 강압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노출했다. 동일한 예로, 한국의 햇볕정책은 북한의 핵 개발을 늦추는데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향후 강대국들은 억지력의 한계가 드러난 경제적 강압 수단보다 군사적 강압을 선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군사력과 핵무력의 재조명

- ◆ 이번 전쟁은 군사적 억지력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과거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에게 확전 의도가 없음을 알리고자 우크라이나군의 전력강화는 최소화하고,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한 나토 가입 가능성 자체를 부인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유럽방어선 밖에 위치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의 대러 견제와 내부 불만이 결합된 압박에 놓인 푸틴에게 서방의 불개입 신호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침공을 유혹했다. 서방측은 경제라는 지렛대를 과신하고 푸틴은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자신하는 오판을 동시에 저질렀다.
- ◆ 우크라이나 전쟁은 터부시 되었던 실제 핵사용의 한계선을 크게 낮췄다. 잠재적 핵위협도 핵사용의 한 형태라는 점에 볼 때 러시아는 이미 핵을 사용하고 있다.

러시아의 잠재적 핵사용 위협은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전투기 등 공격 무기 공급을 주저케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미 미국은 핵사용을 전략적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감안하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핵태세 변화는 이를 방증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정확히는 인태전략의 한반도 버전이다. 핵 선제 불사용, 단일목적(핵 공격에만 핵대응) 재래식공격에도 핵대응(극단적 상황일 경우)이다. 러시아도 “긴장 고조를 통한 긴장 완화”에서 재래식 공격에도 핵대응 의사를 밝힌 바 있다.

◆ 향후 전망과 한국의 대외정책 방향

-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외교 도구로 쓰이는 “경제제재”의 한계와 군사력의 절대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줬다. 향후 국제관계는, 군사안보는 일극(unipolar), 경제·기술은 다극(multipolar)체제에서 모든 분야에서 최대 군사강대국인 미·중 중심의 양극(G2)체제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력이 가진 외교안보적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로 인해 유럽연합은 당분간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 ◆ 중국은 전통적으로 러시아 영향권이었던 중앙아시아에서 크게 약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아시아는 중국주도 경제블록인 일대일로에 완전히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중앙아시아가 중국의 영향권으로 편입되면 중국은 명실상부 유라시아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이 블록은 중국의 기술·자본·시장에 완전히 종속되면서 중국의 정치·사회 규범이 지배할 것이다. 서방측의 대러 압박 및 고립 전략이 강화되고 있지만 제3세계 국가들은 아직 대러 제재 및 비판 움직임이 강하지 않은 편이다.
- ◆ 일본은 이번 사태를 통해 미국과 유럽의 가장 확실하고 신뢰할 만한 동맹국으로 우뚝 섰다. 동시에 일본은 한국·대만과의 안보협력이 절실하다. 한국은 향후 중국, 북한,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당면할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의 저장도 도발은 향후 군사도발로 확대될 수 있고 중국중심의 권위주의 블록 부상에 고무된 북한의 강경해진 대남 자세와 핵위협이 우려된다. 또한 러시아와 안보갈등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양극체제 안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인도와 일본과의 관계 증진과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영국과 호주의 영향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